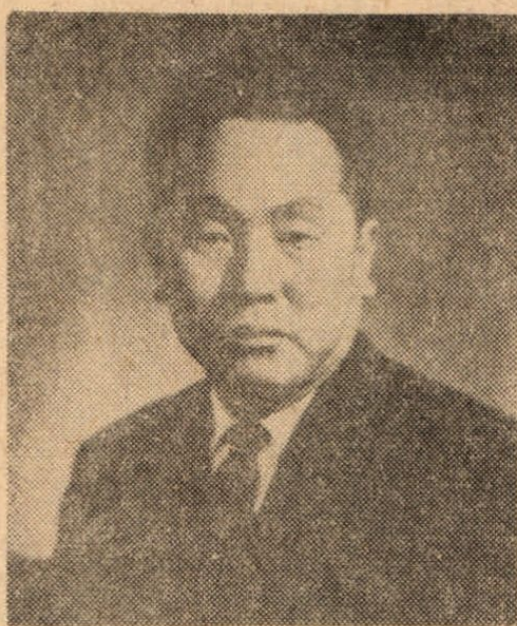


마음 속의 학교

학교장 이 동 욱



나는 얼마전 내가 공부하고 있던 학교의 동창회(同窓會)로부터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받았읍니다. 그 글 가운데서 영국의 계관 시인(桂冠詩人) 「존 메이스필드」의 시귀를 더듬어 나가는 동안 나의 마음 속에는 한 학교(學校)의 모습이 떠올랐읍니다.

그 학교는 어떤 탐스러운 언덕에서 있습니다. 세상에 흔히 보이는 많은 학교들과는 달랐읍니다. 그 곳은 진실(眞實)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자 애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. 그 곳은 문을 두드리며 찾는 이들과 배우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 지혜(智慧)를 찾는 곳이기 때문입니다.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은 애써서 찾아낸 깊은 의미(意味)를 존경하고 아끼며 아름답게 가꾸고자 힘쓰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곳은 힘써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맞아 주며 그들이 외롭고 어려운 처지를 당했을 때 따뜻하게 손을 벌려 맞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.

입니다.

그 학교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맑은 마음에 모든 것이 그대로 비쳐드는 시기에 선택해야 할 삶의 목표를 분명히 보여 주며, 위대한 힘을 가진 협조(協助)의 원칙을, 그들의 목숨이 다 하는 날까지 그들의 목에 튼튼히 달아 줍니다. 귀하고 귀한 인생의 동행자(同行者)를 그들의 뜻에 맞는 대로 선택하게 합니다. 또 그곳에는 드넓은 토론(討論)의 광장이, 끊임없이 일어나는 토론의 제재들과 함께 늘 펼쳐져 있습니다.

사회의 모든 가치관(價值觀)이 무너지고 뜻이 터져 홍수가 인류(人類)를 비참하게 만들더라도, 다투어 앞날이 꺼져 가는 등불처럼 어둡더라도, 그 학교는 서 있어야 할 곳에 분명히 서서 여전히 빛을 발할 것입니다.

어느 곳에서나 이 학교가 있는 한 자유로운 인간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하는 일에 지혜를 줄 것입니다.

송학(松鶴)의 기슭에 조용하게 자라 온 우리 인성(仁聖)이 바로 그 학교이기를 기원(祈願)하는 나의 마음입니다.

이제 「인성」이 여섯 번째의 선을 보이게 됩니다. 나는 두렵고도 설레는 마음으로 「인성」의 나타날 모습들을 기다립니다. 그것은 「인성」이 지금까지 키워 온 여러 모습들을 여러 모습으로 보여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. 힘찬 발걸음으로 봉공(奉公)의 길에 나서게 될 우리 인류인들의 그 지혜(智慧)와 그 신앙(信仰)과 그 용기(勇氣)를 보여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.